

전지현 이혼설·한예슬 남친 과거? “너 고소!”

유튜버 주장에 전지현 이혼설 확산
전지현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
한예슬 남친은 유흥업소 직업 논란
“과거 배경보다 지금 내 감정 중요”



3일 톱스타 전지현(왼쪽)과 한예슬이 자신들의 사생활과 관련한 일각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 스포츠동아DB

톱스타 전지현과 한예슬이 자신들의 사생활과 관련한 일각의 엇나간 시선에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맞섰다. 일부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도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넘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으며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자신들의 사생활에 대한 세간의 의혹 어린 시선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일부 연예인에게만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스타의 향후 대응 움직임에 연예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전지현 남편 “전전 남편하고 싶어!”

3일 전지현은 남편인 알파자산용용 최준혁 대표와 ‘별거설 및 이혼설’에 휘말렸다. “전지현 남편이 운영하는 펀드가 압도적 1위가 됐다”는 기사가 났을 때 전지현 남편 하기 싫다며 집을 나갔다”는 일부 유튜버의 주장이 이날 나왔다. 이에 최 대표는 휴대전화 메시지 프

필 배경화면을 인기 만화 ‘슬램덩크’를 패러디한 사진으로 채웠다. 그는 “전지현 남편 하기 싫다”는 언급을 꼬집으며 “전전(전지현) 남편(남편)하고 싶어요!”라는 문구를 해당 패러디 사진에 담아 공개했다. 자신과 아내 전지현을 둘러싼 세간의 루머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재차 있게 강조한 셈이다.

전지현은 소속사 문화창고를 통해 “이혼설 및 별거설과 관련한 루머는 그 어떤 내용도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과 유튜브 및 지

라시(사실정보지)에서 파생된 의도적인 악성 루머가 생성 및 게시됐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사실과 다른 기사 및 댓글 등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예슬 “남친 배경보다 감정이 더 소중”

한예슬 역시 이날 SNS를 통해 남자친구의 과거 행적에 관한 일부 주장에 세밀한 해명을 내놓았다. 그는 남자친구 류모씨가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예슬은 류씨가 연극배우 출신으로 “(불법 유흥업소가 아닌)가라오케에서 일했던 적이 있다”면서 “몇 년 전 지인과 간 곳에서 그를 알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제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 건 작년 9월”이라면서 당시 류씨가 “그 직업을 그만두고 난 후”라고 말했다. 또 “시간의 흐름 속에 여자로서 한예슬도 소중하고 싶어 남자친구의 배경보다 제 감정이 느끼는 대로 지내왔다”며 그동안 과정을 밝히는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와 함께 2018년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됐다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검찰이 밝혀주길 제가 더 원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한예슬도 향후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과 악성 댓글들은 고소 들어간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지현과 한예슬은 이처럼 톱스타로서 자신들의 이미지가 다소 훼손될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려서도 당당한 태도를 드러냈다. 한 연예관계자는 “사생활 관련 악성 루머 등에 대해 적지 않은 연예인들이 그동안 ‘사실이 아니다’는 해명애 그치지며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의 의혹 제기라면 이에 더욱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김현수·최리·김형서 ‘여고괴담6’으로 뜰까

김규리·박한별 등 톱스타 배출



여고괴담 여섯 번째 이야기: 모교

한국 공포영화의 대표작 ‘여고괴담’ 시리즈의 신작이 관객을 만나게 되면서 또 한 번 ‘스타 등용문’의 역할을 할지 관심을 끈다. 김현수·최리·김형서 등 그 주역으로, 시리즈의 앞선 이야기를 통해 스타급 연기자로 발돋움한 선배들의 계보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김현수·최리·김형서는 17일 개봉하는 ‘여고괴담 여섯 번째 이야기: 모교’(모교, 감독 이미경·제작 씨네2000)의 주연으로 나선다. 기억을 잃은 채 모교에 부임한 교감과 ‘문제아’로 낙인찍힌 여고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그려낸 영화에서 이들은 나란히 학생 역할을 맡아 교감 역의 김서형과 함께 연기를 펼쳤다.

김현수와 최리는 이미 몇 편의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얼굴을 알려 시청자와 관객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연기자이다. 김현수는 최근 인기 드라마인 SBS ‘펜트하우스’ 시리즈로 더욱 낮았다. 최리는 2015년 영화 ‘귀향’의 주연을 이미 경험하며 관객을 만났다. 두 사람은 본격 상업영화인 ‘모교’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시트콤의 부활...OTT 타고 다시 날까

넷플릭스 ‘오늘 지구가’ 18일 공개
웨이브는 ‘청와대로 간다’ 촬영 중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인기를 모았지만 이후 사라진 시트콤이 부활한다. 특 특 튀는 코믹 이야기의 새 시트콤이 잇따라 대중에 만난다. 새로운 무대는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각 제작진은 ‘시트콤 전성기’를 기억하는 시청자의 시선을 자극하며 각 에피소드를 30분 안팎의 짧은 분량에 담아 ‘유튜브 세대’인 1020세대까지 공략하고 나섰다.

넷플릭스가 18일 공개하는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가 대표적이다. 한 대학 국제기숙사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좌충우돌 일상을 그린다. 박세완·신현승·갯세븐 영재·(여자)아이들 민니 등 청춘스타들이 생기발랄한 분위기를 살린다. 대학생 이야기 소재 삼았던 2000년 청춘시트콤 ‘논스톱’ 시리즈와 닮아 일찌감치 화제를 모았다.

‘시트콤 명가’ 출신의 제작진이 뭉쳤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감을 키운다. ‘남자셋 여자셋’의 권익준·‘하이킥’ 시리즈와 ‘갑

자별2013QR3’의 김경식 PD가 함께 연출하고, ‘논스톱’ ‘막돼먹은 영애씨’ 시리즈에 각각 참여한 서은정·백지현 작가가 대본을 쓴다.

웨이브는 올해 하반기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를 내놓는다. 김성령·백현진·배혜선 등이 주연으로 나서 현재 촬영 중이다. 납치 사건에 휘말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아내와 정치평론가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 현실을 풍자한다. 제작진은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정치 소재를 코믹한 상황으로 가볍게 풀어낼 계획이다.

‘떡방’을 주제로 한 코미디TV 예능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을 모티브 삼은 시트콤도 기획 중이다. 일부 OTT도 관련 제작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3일 “최근 온라인상에서 웃음을 자아내는 코미디 계정이 강세인 분위기와 한동안 방송가에서 보이지 못한 신선함이 새 시트콤의 소구점이 될 것”이라며 “20~30분가량의 영상이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유행하기도 좋아 관련 시장이 점점 커지는 상황과도 딱 맞아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하정우 프로포폴 투약 혐의 벌금형 약식 기소



하정우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정우는 3일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행사부는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하정우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하정우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과분한 사랑을 받은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 관리가 필요했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이들)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단일한 판단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지난달 2월 관련 의혹에 “얼굴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았다”고 부인했다.

선, ‘원더슈즈’ 모금액 1억320만원 전액 기부



선

가수 선이 ‘2021 비주얼 컴패션 런-원더슈즈’를 통해 모금한 1억320만원을 국제어린이양육기구 컴패션에 전액 기부했다. 그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행사를 열어 2180명으로부터 정성을 모았다. 기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생필품과 식료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선은 “참가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어린이들을 향한 사랑과 응원을 보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선은 아내인 연기자 정혜영과 함께 컴패션을 통해 세계 4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후원해왔다.

조디 포스터, 칸 국제영화제 명예 황금종려상



조디 포스터

할리우드 스타 조디 포스터가 제74회 칸 국제영화제 명예 황금종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칸 국제영화제는 3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조디 포스터의 수상을 알렸다. 조디 포스터는 “칸 국제영화제에서 내 영화를 보여주는 게 꿈이었다. 실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다”고 밝혔다. 티에리 프레모 칸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그가 “자신을 재발견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배우”라며 “혼란스러운 시대에 배우이자 감독으로서 소중한 아이디어를 관객에 전하려 노력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는 7월6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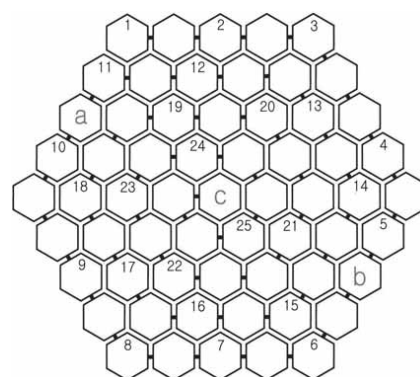
■ 스토쿠문제

		7	8		2	5				
			5		7	8				
5	8							4		
2	9			7				5	6	
			2		1					
8	7			6				1	2	
1									3	5
			4	1		5				
			8	9		6	1			

■ 스토쿠정답

4	7	1	9	2	6	8	5	3
6	8	2	5	8	1	7	9	4
5	9	8	7	8	2	6	2	1
2	1	8	6	9	7	5	4	8
9	4	6	1	5	2	8	7	9
9	5	7	8	2	8	1	6	2
7	6	2	8	1	9	2	8	9
8	2	8	1	9	2	8	9	5
1	9	5	2	6	8	4	2	7
1	6	2	2	9	8	7	9	8
8	7	6	1	9	2	5	4	2
9	5	2	7	8	1	6	1	8
6	1	7	9	2	5	8	8	2
2	9	8	7	6	1	2	5	4
4	8	9	1	6	8	5	2	7
5	2	6	2	9	7	8	6	1
7	8	1	9	8	2	4	6	9

■ 낱말문제



1. 우리나라의 국기.
2. 중세 유럽의 기사로서 지켜야 했던 도덕·윤리.
3. 햇더이 애만 쓰고 공을 들인 보람이 없음. “오로오공”
4. 국경일같이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
5.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 간다는 뜻.
6. 심장이 주기적으로 줄었다 늘었다 하는 운동.

7. 나이가 같은 사람끼리 친목을 꾀하기 위하여 맺는 계.
8. 조직에서 서열을 나타내기 위해 옷에 다는 표장.
9. 머리를 감추고 꼬리를 숨긴다는 뜻.
10. 용모·외모 등을 단정하게 화장해 주는 집.
11. 오이, 참외 따위를 심은 밭을 지키기 위하여 밭머리에 지은 막.
12. 고요하고 쓸쓸한 느낌이 드는 깊은 산속. “막오공”
13. 개인의 산이나 뫼를 맡아 지키는 사람.
14. 실제 상황을 사실 그대로 찍은 영화.
15. 화산의 분화구에 물이 괴어 생긴 호수.
16. 운동 경기에서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 내는 일.
17. 긴급한 사태에 쓰기 위해 마련하여 둔 돈.
18. 머리털이 노란 서양 미인.
19.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
20. 마음과 정신이 조마조마함.
21. 잘 아는 사람을 면대하여 푸대접함.
22. 우리나라의 대학가에서 내뿜어거나 걸어두는 큰 글씨로 쓴 글.
23. 조선 말기에 팔도의 보부상들을 관장하던 단체.
24. 늙어서 걸이 단단하고 씨가 잘 여문 호박.
25.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질러 반기며 기뻐하거나 찬성함.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a~c칸을 이어놓으면 꽃 이름이 됩니다.

